조계종 국장단 소폭 인사

홍보 범종 · 문화 각승 · 호법 효신 스님


범종 스님


각승 스님


효신 스님

조계종이 6월 5일 국장단 소폭 인사를 단행했다. 홍보국장엔 문화국장이던 범종 스님이, 문화국장엔 호법국장이던 각승 스님이, 호법국장엔 홍보국장이던 효신 스님이 자리를 옮겼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임명식 이후 "항상 종도들과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자리에 있든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맡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보국장 범종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1997년 수계했다. 현등사 현등선원, 부석사 봉황선원, 고운사 고금당선원 등에서 안거 수행했으며, 문화사업단 사업국장, 호법부 상임감찰, 문화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안동 광흥사 주지를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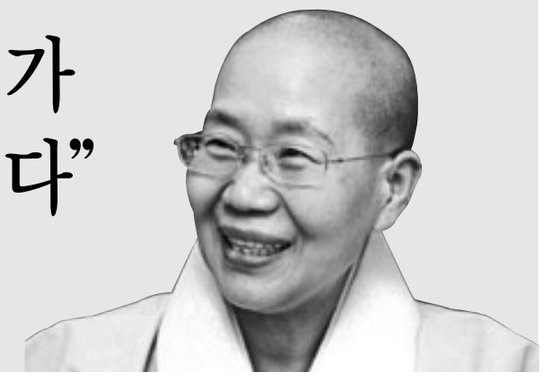
문화국장 각승 스님은 월탄 스님을 은사로 1991년 수계했다. 동국대를 졸업하고 호법국장을 역임했다.

효신 스님은 종수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수계했다. 동국대(경주)를 졸업하고 호법과장, 상임감찰, 홍보국장 및 문수사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무엇보다 인간관계가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Interview

8월 정년퇴임하는 동국대 교수 계환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정각원 법회서 마지막 법문

인간관계의 소중함 당부해

"인연에 감사한 마음 가져야"

"만인이 행복할 때 비로소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해 간다면 어떤 인간관계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30여 년간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지도해 온 계환 스님이 오는 8월 강단을 떠난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환 스님은 5월 28일 퇴임식을 겸한 동국대 정각원 법회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희망을 되새긴다. 희망은 인관관계에서 비롯된다"며 주변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말로 소회를 밝혔다.

계환 스님은 법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2년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청도 운문사 비구니불교전문강원 대교과 졸업 후 일본 하나조노(花園)대학 불교학과와 교토(京都)불교대학 대학원에서 석 ·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30여 년간 동국대에서 교수로 근속했다.

동국대에서는 특히 첫 비구니 도서관장을 맡아 전국 최초로 도서관을 지역기관 및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리모델링 불사를 성공리에 마치는 등 변화에 앞장섰다. 제10대 전국비구니회에서는 운영위원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정각원에서 열린 법회서 스님은 "인간관계에서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며 쌍방향 도로와 같다"며 "내가 그동안 행한 여러 가지 말들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정년을 앞두고 비로소 반성을 해본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유마경〉의 가르침을 인용해 "'일체중생이 아프면 나 또한 아프다'는 말이 바로 불교를 상징한다. 상대가 불행하면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만인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느껴야 한다.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것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인간관계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계환 스님은 향후 현재 맡고 있는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다.

스님은 "산에 오를 때는 한걸음 진땀 흘리며 힘겹게 오르지만 내려올 때는 다르다. 하나하나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한걸음 뗄 때마다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듯이 우리 불자님들이 하루하루의 정신 수행을 소중히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털어놓은 스님은 출가와 교단 생활을 병행하며 느낀 바를 전했다. 스님은 "성실함은 모든 것을 이기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진정성이 최고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원하는 부와 명예보다도 '사람'을 얻어야 한다"며 "모든 것이 여러분과의 인연 덕분에 배운 가르침이며 그 인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계환 스님은 동국대 비구니 수행관 혜광사 사감과, 동국대 불교대학 학장, 불교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현수 법장 연구〉 〈중국불교사〉 〈화엄사상사〉 〈홍명집〉 〈일본불교사〉 〈고려대장경연구〉(공저) 〈중국화엄사상사〉 〈경전산책〉 〈상식으로 만나는 불교〉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등 다수가 있다.

"어르신 편안한 노후 발원"

내장사, 5월 31일 어르신 경로잔치



정읍 내장사(주지 도완)는 5월 31일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정읍지역 어르신 500명을 초청해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도완 스님, 대우 스님을 비롯한 내장사 대중스님들과 유성엽 국회의원, 이호준 정읍노인회장,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 등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해 각종 공연과 기념품 전달 등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모교 사랑' 실천한 기업가

임금동 한세상사 대표, 동국대에 8천만원



임금동 ㈜한세상사 대표이사는 6월 5일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을 예방하고 학교 발전기금 8000만원을 기탁했다. 동국대 경영학과 81학번인 임 대표는 2014년에도 2000만원을 기부해 총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로터스관 건립기금으로 학교에 전달했다. 기부에 앞서 임 대표는 "다른 동문들의 기부 의지를 북돋는데 힘을 보태자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신성민 기자**



"사명당 기념사업, 北과 교류"

사명당기념사업회 5대 회장 취임

운붕 스님이 사단법인 사명당기념사업회 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스님은 사명대사를 기념하며 남 · 북한의 교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사명당기념사업회는 6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운붕 스님의 5대 중앙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운붕 스님은 "최근 남북 화합의 바람이 불고 있다. 조선 중기, 국토를 지키신 사명대사는 평양 시민의 영웅이다. 회장으로 취임해 사명대사의 기념사업회로 북한과 교류해 사명대사의 발자취도 재조명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서울 도심에 사명대사 기념관을 만들겠다. 사명대사에 대해 와전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대중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운붕 스님은 불국사 말사인 포항 대성사 주지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승무, 살풀이춤 87호, 97호 전수자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차원에서 2006년 평양을 방문한 바 있다. **박진형 기자**

"노약자 위해 사찰접근성 조사"

스쿠터로 108산사 순례 나서는 조병래 포교사



"108산사 순례를 하면서 계단과 경사로 등의 정보를 수집해 각 사찰을 찾고자 하는 교통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사찰은 교통이 발달한 도심보다는 고즈넉한 산중에 위치한 곳이 많다. 이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찾아가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조계종 15기 포교사 조병래(61 · 법명 혜강) 씨는 이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108개 산사를 순례하면서 사찰접근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계획이다. 그가 108산사 순례에 뜻을 품게 된 것은 자신의 인생 후반기 초점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회향으로 보내는 데 뒀기 때문이다.

"2016년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뒤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많은 인연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행복하게 살았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받은 것을 회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씨의 순례가 독특한 이유는 이동수단이 스쿠터라는 점이다. 그는 최근 대림오토바이에 108산사 순례계획서를 보내 대림스토리메이커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림 측에서 최신모델 스쿠터와 안전장비, 유류비 및 수리비 등을 후원키로 결정하면서 순례에 탄력을 받았다.

"몇 년 전 제주도에서 스쿠터로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스쿠터를 타면 탈수록 자기를 놓치면 큰일 나는 기계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네 발 달린 교통수단은 잠시 딴 생각을 해도 위험이 덜하지만 스쿠터는 곧바로 사고가 나니까요. 마치 물고기처럼 깨어있어야 하는 좋은 본보기라고 느꼈습니다."

이 씨는 6월 11일 관음성지인 강화 보문사를 시작으로 8월 22일까지 약 70일간의 순례에 나선다. 총 거리만 4,800㎞에 달하는 대장정이다. 그는 순례과정에서 사찰참배뿐만 아니라 〈천수경〉 독송, 108배, 발원문 봉독, 관음정근 등의 수행도 실시할 계획이다. 순례사찰은 선묵 혜자 스님의 108산사순례기도회를 바탕으로 선정했으며, 드론과 액션캠 등으로 사찰 주변을 촬영해 향후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번 순례가 단순히 저만의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윤호섭 기자**

"천진불도 사찰음식 매력에"

적조사, 영유아 함께하는 사찰음식체험



서울 전통사찰 돈암동 적조사(주지 탄국)는 6월 2일 영유아와 함께하는 '건강한 사찰음식체험'을 실시했다. 이 자리는 영유아들이 사찰음식 만들기와 맛보기를 통해 사찰음식의 매력을 느끼도록 돕는 불교문화체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500여 명이 참여해 직접 사찰음식을 체험하고 즐겼다. **윤호섭 기자**

탈종공고

- 등록면허 20161006-0025
- 주 소 : 전남 광양시 진상면 섬거리 960
- 사찰명 : 은선암
- 창건주 : 남남순

상기인은 귀종단의 종헌,종법이 본사암과 맞지않고 본인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3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쑥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욜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욜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뻥뻥!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신화종합불사
- 전통한옥 법당 철거, 개축, 신축
- 30년 경력 대목장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불모조각장인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범종 장인이 함께합니다.
- 9평 산신각, 신축, 특A급 가격저렴
- 10평 정자, 18평 법당 증축가증 A급
- 17평 요사채, 21평 증축가능
- 31평 재실, 38평 법당증축가능 A급
- 60평 한옥 2층 증축가능(신축)
- 80평 요사채, 40평씩 분할가능
  석탑 5~7층 다수 있음. (5~3천만원)
  수익형 기도처, 서울매매 21억
  (2억, 월 1천만원 세있음)
- 강원도 6천평 삼성각,대웅전,명부전, 요사채, 한옥펜션 등 다용도 전환가능 양도가 16억
- 강원도 철원.대지 4.800평. 대웅전.삼성각 등 건물 800평 전통 한옥 목조 건물임
- 납골당 수목장 요양시설 등 전환가 양도가 40억원
- 안성. 전통한옥. 특A급. 대지 1,600평 건평 140평. 사찰, 연수원 등 전환가능 양도가 25억 급매
- 서울시내 전통사찰 부지 1,200평 양도가 120억원. 잔고 증명 요함
- 이동식 스틸하우스 30평. 설치까지 3천만원
- 그외 다수의 사찰, 또는 매물 등이 있습니다.

010-6545-2020